2026년 봄호

제 122 호 2026년 3월 23일

서울대 기독선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발행인 • 임현우 / **편집인** • 권순희 최하영 / **학생기자** • 조건호 이예은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FAX** • 888-9112

개강예배

서울대기독인연합 개강예배가 3월 23일 월요일 19시에 26동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 말씀은 김회권 목사(숭실대학교)가 담당한다. 주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이며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43:19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1면 칼럼 … 강영훈

2면 서기연 대표 이임사 … 김하영

학생기자 퇴임사 … 조건호

3면 서울대 원단 금식기도회 후기 … 최하영

그뜰 한국어 카페 소식

멘토링 프로그램 소식

4-5면 선교단체 소개

6면 비전스쿨 후기 … 김한나

농기연 커피차 사역 후기 … 이소은

7면 수의기연 크리스마스 파티 후기 … 조유빈

크리스마스 사역 후기 … 정서윤

북클럽 소식 … 정명현

8면 2025-2학기 종강예배 사진

칼림

요셉의 고난과 승리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창 39:20-21)

1. 시작하며

긴 추위를 견딘 봄이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캠퍼스에도 신입생들이 활기찬 첫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이제부터 학업과 미래진로를 놓고 새로운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청년기의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은 우리 청년들에게 무한한 영감과 도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7장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방 땅 애굽에 정착하고, 430년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중에 본문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 생활하는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전후 상황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누명 쓴 요셉

요셉이 투옥된 것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으나, 요셉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당시 17세 소년이었습니다(창 37:2). 청년의 혈기가 왕성한 요셉이 그런 유혹을 거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고, 보디발 아내의 손에 잡힌 자신의 옷을 버려 두고 도망쳐 나옵니다(창 39:12).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범죄하기 쉬운 장소와 상황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요셉에 대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을 겁간하려고 하였다면서 누명을 씌웁니다.

사실 요셉의 억울함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에 따라 형들과 양 떼를 살펴보기 위해 도단에 갔을 때, 형들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자 하였습니다(창 37:14-18).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장남 르우벤의 만류로 그는 죽음을 면했으나,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어린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지만 야곱의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는 여호와의 크신 섭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비옥하여 산물이 풍부한 애굽 땅은 야곱의 가족이 인구를 늘리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왕궁의 내밀한 사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요셉에게는 최적의 수련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보다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감옥을 예비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좁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선한 뜻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3. 범사 형통한 요셉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종에 불과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모두 위탁하였습니다(창 39:5). 마찬가지로 간수장도 죄수 신분인 요셉에게 옥중의 죄수를 맡기고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창 39:22). 그들이 요셉의 능력을 크게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디발과 간수장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요셉의 범사가 형통함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된 이후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가 여호와의 사람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하늘나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불신자를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범사가 형통하는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여호와의 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지혜로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창 41:39). 우리도 범사에 여호와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시작하여 가정총무가 되었고, 옥중에서는 죄수에서 시작하여 간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세상 일과 인간군상(人間群像)을 경험하였고, 괴로움과 두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을 길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눈물로 씨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시 126:5). 어느덧 과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했던 요셉의 미성숙은 30세에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원숙한 성품과 지도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10여 년에 걸쳐 요셉을 연단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10여 년간 사울 왕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30세가 되어 비로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삼하 2:4), 7년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과 시험은 영적 성장의 도약대이자,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하겠습니다.

4.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서 혼자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과 좌절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17세에 요셉은 밭에서 형들의 곡식 단이 요셉의 곡식 단에게 절하는 꿈(창 37:7), 해와 달과 11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창 37:9)을 꾸었읍니다. 요셉은 그 꿈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자신의 미래를 믿음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우리도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실 미래를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요셉은 꿈을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에서 술 관원장의 포도즙 잔 꿈, 떡 관원장의 떡 세 광주리 꿈을 해몽하여(창 40:10-19) 술 관원장의 회복과 떡 관원장의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왕이 꾸었던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 꿈에 대해 해석하여 장차 애굽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이 여호와에게 있으며(창 40:8), 여호와께서 꿈을 통해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신다고(창 41:26) 말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단 2:28)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늘나라의 은밀한 것을 알게 될 정도로 여호와와 친밀한 교제를 지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겠다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요 15:15)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나누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셉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그는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꿈과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굳게 믿었고,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셨으며, 마침내 애굽의 지도자가 될만한 인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면서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며, 금 사슬을 걸어 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웠습니다(창 41:42-43). 또한 바로 왕은 애굽의 최고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이름도 사브낫바네아(비밀의 계시자)로 개명하여 그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시험과 고난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정 기한 동안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을 높이셨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상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히 11:6)고 강조합니다.

3월 만물이 생동하는 캠퍼스에서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꼭 붙잡고, 각자의 삶에서 요셉의 분투와 승리를 구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강영훈(대학촌교회 장로/제주평화연구원장)

서기연 대표 이임사

"아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했나요?"

임기의 마지막에 서며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서기연을 섬기다 보면 제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31 - 32의 데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 떠났으나, 중간 지역인 하란에 머물러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여정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도 한 가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혹여 데라처럼 멈추어 버릴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하며 주저앉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제 기도는 늘 같았습니다.

"주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세요."

대표로 섬겼던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걸을 수 있었고, 작은 일에도 기도로 구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대표의 자리로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2025년도 서기연을 향한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캠퍼스로 흘러들어오는 국제학생들을 품는 공동체, 코로나로 무너진 흔적들을 회복하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시 잘 세워지는 서기연을 보게 하셨습니다.

2025년의 문을 열며 저는 이 캠퍼스에서 받아온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고자 대표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저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저 제가 그분 안에 머물며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며, 이 공동체와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다는 사실을요.

함께한 지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그만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에 더욱 깊게 자리 잡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저를 홀로 세워 강하게 하셨고, 때로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셔서 막혀 있던 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준 중앙위원들,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걸어준 지체들 덕분에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단순한 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예배자들이 주님께 나아왔고, 캠퍼스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제 마음은 설렘과 경외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모든 길은 제 안에서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잊고 있었던 오래된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이 쓰시기에 잘 벼려진 칼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의 자리는 제게 바로 그 벼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쇠를 달구고, 망치로 수없이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하고도 유연한 형태로 다듬어지는 과정, 그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지나며 서로의 손을 붙들어 준 중앙위원들이 있었기에, 저는 어떤 순간에도 버티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영상과 디자인 작업을 애정으로 도맡아준 예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 단체들과의 소통을 책임져 준 세린,
회계를 비롯한 많은 일을 보조해주고 묵묵히 감당한 예찬,
캠퍼스에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관련 사역을 지휘한 은재,
추위 속에서도 기쁨으로 크리스마스 사역을 감당하던 서윤,
저학번들을 세우기 위해 MT를 준비한 혁진,
지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던 연희,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음향과 SNS를 맡아준 지우.

이들이 눈앞의 어려움이 아닌, 그 어려움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왔기에 2025년의 서기연은 더욱 주님께 드릴 만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서기연 룸의 오래된 캐비닛을 열면, 세월에 닳은 종이 사이로 이 캠퍼스에 복음을 심어온 선배들의 흔적이 빼곡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음 사람들을 떠올리면 다시 소망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캠퍼스에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서울대기독인연합이 더욱 하나 되어 연합하며,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캠퍼스 위에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걸을 때 주셨던 평안과 기쁨을 마음 깊이 품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나누었던 사랑과 동행의 시간을 잊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로 계속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떠오르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 그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김하영(자유전공20)

학생기자 퇴임사

글을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란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직은 눈에 선한 1년하고도 몇 개월입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여섯 호를 함께하고 진나빛을 떠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자에 취임하던 저는 초연한 마음으로 익숙하게 기획을 하고 글을 받는 1년차가 되었으며 어느 순간 진나빛 기자는 저에게 사역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자리였습니다. 누구보다 가깝게 캠퍼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고 길고 긴 과정 끝에 개·종강 예배에서 신문을 나눠드릴 때면 과목 하나를 종강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취임사를 쓸 때가 아직 눈에 선한데 어느새 퇴임사를 적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이 글을 적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글로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랬는지 그저 정신줄을 놓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이 참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데에 두 달은 부족했나 봅니다. 머리카락을 파고들던 찬 바람이 데워지는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하루를 보냈나 생각하니 1년이 금방입니다. 선배 기자분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 동안 섬겼음에도 이미 익숙해진 섬김을 떠나게 되어 아쉽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작은 족적 하나 남긴 걸로 저는 감사하려 합니다.

작년 겨울 취임사를 쓰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선교단체 수련회의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에 혼자 노트북을 부여잡고 나의 섬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고심하며 글을 썼습니다. 제 취임사의 주제는 미덕으로써의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야 할 덕(아레테; ἀρετή)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니 기자로서 캠퍼스에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아레테라는 게 간략한 요약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덕은 그다지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실수도 많이 했고 원고 펑크 낸 적도 있습니다. 저의 치부를 밝히려니 낯부끄럽긴 합니다. 그래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간사님들, 학생분들의 간증을 가장 가까이서 들으며 많은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되돌아보니 제가 한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되돌아보니 은혜라는 말이 결국 제 결론입니다.

ELOVE의 '오직 주의 은혜만'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없는 내 모습 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해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님의 사랑이 익숙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저는 사랑을 모르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백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상하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랬나요, 찬란한 은혜로 익어간 1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동원 선배, 하영 선배, 권순희 권사님, (이)예은이, 그리고 타지에서까지 큰 도움을 주신 (문)예은 선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Soli Deo Gloria!

조건호(산림24)

서울대 원단 금식기도회 후기

2월 21일(토),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원단 금식기도회가 26동 B101호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대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 제목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를 방문하기가 오랜만이었는데, 예전처럼 '공부를 하러' 또는 '친구들을 만나러', '동아리 활동을 하러'가 아니라 '기도를 하러' 학교에 간다는 감각이 무척 새롭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기도하러 모인 인원이 종일 수십 명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하나의 사역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으로 바라보며 중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첫 순서는 대학촌교회에서 맡았고 임현우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선포했던 것을 두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명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오직 주님의 역사를 예비하는 그 길 말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섬김의 바톤을 넘겨주는 흐름 속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흥하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새겼습니다.

이후 주제별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기독학생회의 찬양과 기도 인도 가운데, 대학 복음화와 기독 단체, 단대 모임들을 두고 중보했습니다. 올해 입학하는 친구들을 위해, 서기연 및 소속 단체들의 올해 사역을 위해,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교단체와 단대기연의 이름도 하나하나 불러가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적 가치와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캠퍼스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음 세션은 국제 학생과 열방 선교를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및 영어 찬양을 준비한 서울대 월요 찬양팀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지역에 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길 구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는 서울대 학부모기도회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무너진 모습들을 회개하고, 국가 리더십과 행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와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북한 선교와 통일을 주제로 했으며, 서울대학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먼저 기독교수협의회 남승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북한의 암담한 현실에 우리가 애통함을 품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비전을 "복음의,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통일"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분단의 아픔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며, 통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시민들, 청년들,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사회의 통합을 구했습니다.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조금 더 나눠보면, 선교적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더 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캠퍼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꾸려보고, 다른 이들을 초대할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서울대학교 기독인 공동체가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원단 금식기도회의 경험에 힘입어, 캠퍼스 바깥에서도 중보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하영(편집인)

서기연 원단금식기도회

서기연 원단금식기도회(2)

서기연 원단금식기도회(3)

그뜰 한국어 카페 소식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카페

Coffee & Free Conversation
Join us for personalized Korean free-talk sessions tailored to your interests! If you'd like to improve your Korean in a relaxed and friendly environment, this is the perfect place for you. Everyone is welcome!
March 21 - May 30(10 weeks)
Every Saturday 2:00~4:00 PM
4th floor, 108 Sillim-ro 그뜰(#401)
Free of charge
For more information, scan the QR code on the right

멘토링 프로그램 소식

미래 목회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2기 모집

목회 및 신학에 관심이 있는 서울대 기독인에게 선배 목회자들을 소개합니다.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선배 그룹을 소개하고, 본인의 소명과 신학교 진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임 날짜는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하게 됩니다.

2025년 1기에서는 지역교회, 기관사역, 대안목회, 학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2기에서도 해외 한인 사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의 선배들을 소개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3월 31일까지
활동 기간: 2026년 4월~12월
신청 및 문의: 임현우 목사 010-5402-4694
주관: 대학촌교회

멘토링 프로그램 후기

선교단체 소개

네비게이토 선교회
대표: 정재원 (010-2339-9318)
인스타그램: @snu_navigators
모임 장소와 시간: 12동 401호, 수요일 18:00
한줄 소개: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소개글:
#Q1. 네비게이토는 어떤 곳인가요?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1933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12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국제적이고 복음적인 선교회로 한국에서는 1966년에 시작하여 전국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서울대 기독인연합(서기연)에 소속된 중앙 동아리로서 서울대 학생들을 올바른 신앙, 전공분야의 탁월한 지식, 성숙한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Q2, 네비게이토에 들어가면 뭐가 좋나요?
바시소24 선OO: 동아리 방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니 전공 공부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었어요ㅎㅎ
전기24 김OO: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같이 재미있게 하니까 운동을 즐기게 되었어요!!
약학22 김OO: 아침에 학교에서 Quiet Time(QT)모임을 갖고 친구, 선배들과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서도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조선23 선OO: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자존감이 생기고, 다른 친구들도 존중하게 됐어요!

한사랑 선교회
대표: 문지명 (010-2188-7354)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63동 421호, 월요일 17시
한줄 소개: 한사랑선교회(The Love Mission)는 light & love & life 3L이다.
소개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
서울대에서 1971년 태동된 공동체로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한 주 요사역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자, 전도자, 양육자, 사명자로 세우는 일대일 혹은 소그룹 7단계 양육과정이 있으며 기도모임과 매주 캠퍼스 노방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실'을 열어 한국어를 도와주며 친구관계를 맺고 사랑의 섬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는 섬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돕기 위한 제자훈련을 소개합니다.
1. 예수 제자훈련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자, 전도자, 양육자. 사명자로 세우는 성경공부 7단계
1) 복음과 새 생명 2) 그리스도안에서 새 생활 3) 성령 4) 믿음 5) 교회 6)찬양과 경배 7) 제자의 도와 세계선교
2. 외국인 유학생 섬김- 한국어교실(Korean Class)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외롭고 힘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교실(Korean Class)'을 통하여 한국어(말하기, 문법, 발음)를 가르쳐 주며 한국 문화 체험과 교제시간을 통하여 친구를 맺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로 함께 자라가는 한사랑선교회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ABSK
대표: 김가연 (010-4299-6335)
인스타그램: @snu.absk
모임 장소와 시간: 아시아연구소 417호, 금요일 18:00
한줄 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소개글:
ABSK(Asian Baptist Student Koinonia)는 Koinonia라는 헬라어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통해 성경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비대면 미팅을 시작한 이후로는 주기적으로 서울 내의 대학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Harvard, MIT, University of Alaska 등 미국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매년 전세계 ABSK가 함께 모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AM
대표: 임일균 (010-5893-1151)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32호 (CAM룸), 수요일 저녁
한줄 소개: CAM은 Christ's Ambassador Mission의 약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소개글:
CAM 대학선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 대학과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제자 양육, 캠퍼스 정기예배, 전도와 섬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성경 공부와 교제, 워킹 처치, 지부 연합 모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CC
대표: 김하경 (010-6680-4696)
인스타그램: @snu_ccc
모임 장소와 시간: 26동 B101, 목요일 19:00
한줄 소개: 전도, 육성, 파송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 CCC
소개글:
CCC는 대학생 선교단체로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고, 캠퍼스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ovements Everywhere(어느 곳에서나 영적 운동을 일으키기)'라는 비전 아래 전도, 육성, 파송의 단계를 거쳐 복음의 능력을 갖춘 영적 리더로 훈련 받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채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선후배 간 의 '순모임'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또한, '수련회'를 통해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얼어붙은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훈련받고자 한다면 CCC에서 함께해 보아요!

CMI
대표: 정진욱 (010-3699-1953)
인스타그램: @cmi_snuss
모임 장소와 시간: 낙성대CMI선교센터, 목요일 19:00
한줄 소개: "Be a good worshiper, make a good worshiper!"
소개글:
CMI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복음주의 대학생 선교단체예요. 학원복음화협의회 정회원으로 1961년부터 한국과 세계캠퍼스 선교를 위해 힘쓰며, 성경말씀으로 섬기고 있어요.
서울대 CMI는 '서울대를 위한 CMI, 예수의 CMI'의 목표 아래, 1) 인격적인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한 삶의 변화 체험, 2) 매주 캠퍼스 예배를 통한 캠퍼스에서의 신앙고백, 3) 학기별 수양회와 방학 중 캠프, 해외 비전트립을 통해 폭넓은 교제와 영적 성장, 4) 지부 모임을 통한 타 캠퍼스 외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Be a good worshiper, make a good worshiper!"의 비전을 갖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캠퍼스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고, 참 예배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답니다. 성경 말씀과 꾸준한 신앙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CMI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만들어가 봐요^^

ESF
대표: 우진영 (영어교육 22, 010-9126-7283)
인스타그램: @snu.esf
모임 장소와 시간: 장소 모임과 시간: 설입 관악ESF 회관, 월요일 18시/ 목요일 19시
한줄 소개: 말씀의 사람들 ESF
소개글:
ESF(기독대학인회)는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주의 초교파 학생 선교운동 단체입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통한 성서한국, 세계선교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ESF 활동
일대일 성경공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말씀 입문, 창세기, 로마서, 출애굽기 등 성경을 깊이 배우고 삶의 질문과 고민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캠퍼스 모임: 캠퍼스별로 모여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를 배우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청설모(청년 서울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요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관악 지구에 속한 다양한 캠퍼스의 학생들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전 함께 식사하고 예배 이후 나눔과 교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학 전국수양회, 두쫀쿠 만들기, 봄소풍, MT, 스포츠 관람, 출사 등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양한 캠퍼스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서로 섬기며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ESF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대표: 이윤지 (동물생명공학부21,010-4992-5434)
인스타그램: @snu_gldi
모임 장소와 시간: 24동 108호, 수요일 19:00
한줄 소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제자, GLDI!
소개글:
GLDI(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는 서울대기독인연합 소속과 서울대학교 중앙동아리 가등록 단체로,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에 순종하며 영성과 인성,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함께 성장해나가는 모임입니다! 특히

신앙의 멘토 및 선배들과 일대일·소그룹으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기쁨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GLDI는 한국 학생들 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비롯한 다문화권 학생들과 교제하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편하게 와서 말씀을 듣고, 친구를 사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GLDI와 함께해요♥

IBS 성서학당

대표: 김혜지 (010-7576-5619)
모임 장소와 시간: 43-2동 116호, 월요일 19:00
한줄 소개: IBS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의 선택과 고민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소개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성서학당(Institute of Bible Studies) 'IBS'입니다.

IBS는 서울대 캠퍼스 선교와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성경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말씀의 빛 안에서 돌아보며 간증하는 관계 중심의 캠퍼스 선교 단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대학생활에서 겪는 삶의 고민을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됨을 찾고 진실된 관계를 배우며 알아가기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정기모임으로 성서 강해, 분기별로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 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또 주변의 지체를 돌아보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서학당 IBS!

누구라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길 소망하는 여러분을 성서학당 IBS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IVF

대표: 이소은 (010-2296-8427)
인스타그램: @snu_ivf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16호, 목요일 18:00
한줄 소개: The Story begins Now with Us, 너의 이야기가 들려~
소개글:

IVF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모토로 활동하는 초교파 복음주의 학생운동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강해와 소그룹별 성경 연구를 통해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소그룹 모임과 원투원을 통해서는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또, MT, 수련회 등 다양한 모임으로 따뜻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IVF는 자유롭고 솔직한 나눔을 환영하고,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세상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IVF와 함께해요~

JOY

대표: 이영훈 (010-4224-1784)
인스타그램: @joymission_snu
모임 장소와 시간: 28동 혹은 500동 강의실, 목요일 18:50
한줄 소개: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spell JOY!
소개글:

죠이선교회(JOY)는 서울대 기독인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건강한 기독교 중앙 동아리이며,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여길 때 참 기쁨(JOY)이 있다는 정신을 중심에 두고, 그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에 동의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면 참 기쁨이 있나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복음이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사는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분 들이라면 언제나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저녁 JFM(Jesus First Meeting)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전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에도 세상의 갖가지 문제와 고민들을 나누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다루어보는 오픈 세미나, Others Second Meeting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서울대학교 재학생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고민이 많은 그리스도인, 혹은 그냥 세미나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 학업으로 지쳐 있는 죠이어들이 일상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글램핑, 피크닉, 야구 직관, 강점 테스트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죠이데이가 여러 차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오기도회, 북스터디, 복음캠프 등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시간들 또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방학 중에도 함께 모여 다른 캠퍼스의 죠이어들과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며, 수양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듯, 죠이어들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인간적인 친밀함과 즐거움을 넘어 복음을 통해 참 기쁨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를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전 학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학생회관 422호 문을 두드리시거나 인스타그램 또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SFC

대표: 전성연 (010-3617-8737)
인스타그램: @snu_sfc
모임 장소와 시간: 63동(학생회관) 419호, 화요일 18:30
한줄 소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소개글:

서울대 SFC(Student For Christ, 학생신앙운동)는 SFC 강령을 중심으로 모인 선교 단체입니다. SFC 동아리원은 '운동원'이라 불리며, 개혁주의 신앙과 삶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SFC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서울대 SFC는 매주 큰모임과 작은모임으로 교제합니다. 2026년 1학기 큰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6:30분에 진행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녁 식사 교제를 진행합니다. 작은 모임 일정은 학기 시작 후 결정하며,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 배우고 삶을 나눕니다. 또한, MT, 나들이 등으로 일상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서울대 SFC는 다른 대학 SFC와도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여름 전국 SFC 대학생대회, 겨울 수도권 SFC 대학생대회를 통해 다른 학원의 운동원들과도 교제하고 함께 수련회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배우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서울대 SFC는 SFC 밖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캠퍼스 내의 노동자분들께 감사를 나누는 브라운데이 운동, 캠퍼스 밖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 면접 응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UBF

대표: 오지훈 (물천 23, 010-9995-1121)
인스타그램: @snubfriend
모임 장소와 시간: 두레문예관 67동 301호, 수요일 18시 / 주일 예배 후 12:30점심 교제
소개글:

UBF는 대학생활 가운데 나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경공부 중심의 동아리입니다.

성경공부: UBF는 말씀 중심의 귀납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열린 질문지를 바탕으로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각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나눕니다.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힘을 기르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인격적인 일대일 성경공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GBS(Group Bible Study)가 있습니다.

소감쓰기: UBF에서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소감'으로 써 봅니다. 소감쓰기는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삶에 연결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선택과 태도, 관계를 결정하고 삶을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작성한 소감을 서로 나누면서 각자의 은혜와 깨달음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기마다 진행되는 바이블 아카데미, 학기별 MT, 여름 바이블 캠프뿐 아니라 국제수양회, 전국청년대학생수양회, 세계선교보고대회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시야를 넓혀갑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앙 성장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더 큰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YWAM

대표: 홍소이 (정외 25, 010-6692-6756)
인스타그램: @snuywam
모임 장소와 시간: 추후 결정 예정
한줄 소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소개글:

YWAM(Youth With A Mission)은 우리의 삶, 캠퍼스, 그리고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배하는 선교단체입니다.

학기 중 YWAMer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내에서 캠퍼스 모임으로, 목요일 7시에는 외부 교회에서 서울의 모든 대학생 YWAMer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외에도 중보기도 모임, 아침 묵상 모임, 책모임 등 다양한 모임으로 가족됨과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선배와 후배를 1:1로 매칭해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는 양 목자 관계, 형제연합과 자매연합에서의 공생 등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MC(Mission Conference)에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국내와 해외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011년부터 매년 탄자니아에 방문해서 지하수를 탐사하고 과학캠프를 진행했으며, 그 외에도 중국, 몽골, 러시아, 칠레, 제주도 등에 다녀왔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선교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저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위 연락처나 DM으로 연락주세요!

비전스쿨 후기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비전으로, 튀르키예에서의 열흘

1. 비전스쿨 및 비전트립 소개: 멈춤의 시간에 찾아온 소중한 초대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랐던 목표를 내려놓고 막막한 안개 속에 서 있을 때, 비전스쿨은 뜻밖의 선물이 되어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기에 튀르키예의 낯선 땅에서 어떻게 "현재"를 누리는 평안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평생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스쿨은 약 세 달 동안 정치, 사회, 경제, 예술, 공학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찬 멘토들로부터 삶의 지혜와 비전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과정을 넘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 가족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이 훈련의 정점인 비전트립은 약 열흘간 땅밟기 기도, 대학 노방 전도, 난민 사역 등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단기 필드 트립입니다.

2. 지원 및 결정 과정: '인색했던 마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열심

평안한 가정에서 순탄한 신앙생활을 해오며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의 선교사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정작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내려놓는 일에는 인색한 편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나눔에 마음을 열기 어려웠고, 공동체 안에서 깊이 헌신하는 일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짧고 굵은 고시 수험생활을 마무리하며 처음으로 스스로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절반 동안 품어온 꿈을 내려놓아야 했던 시련 속에서 "살려달라"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오히려 세상의 성취보다 귀한 사랑을 영혼에 새겨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계속 문을 두들기셨던 주님은 비전스쿨 첫 MT 때부터 강팍한 마음을 녹이셨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가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3. 두 가지 응답: 예비하신 공동체와 현재의 평안

이번 트립을 통해 하나님은 간절히 구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선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던 '공동체'를 캠퍼스 내에서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비전스쿨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현지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버스에서나 식사 때나 즐거이 나눔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 아이들 사역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방황하던 시기에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한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있고, 너를 위해 예비했단다"라는 주님의 세밀한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불안을 넘어선 '순종과 평안'으로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느라 고민하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트립에서 정말 감사한 건, 잡생각 하나 없이 3주에 가까이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경험을 거의 처음 해봤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조차 항상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만난 튀르키예 친구 A, 그리고 난민 사역에서 만난 시리아 육 남매 중 셋째 아이 L은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L과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섬기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4. 추천과 소망

비전트립 내내 입가를 맴돌던 찬양은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입니다. 물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지체들과의 교제나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을 느낍니다. 트립이 끝난 지금도 주님께서는 매주 한두 번씩 꼭 이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며, 서로 기도하고 나누는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 앞에서, 신앙의 고민과 외로움을 가진 청년들에게 비전스쿨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스쿨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남 교수님 및 박 목사님이라는 신앙의 멘토를 처음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의 대표님과 부사장님 등 사회의 귀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나며 얻은 인사이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성공과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찾는 청년의 때부터 가정을 이루고 주님 곁으로 갈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기도를 바꾸시고 진정한 평안을 되찾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나(정외 21)

농기연 커피차 사역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학기 '농기연 × seed 음료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산림과학부 24학번 이소은입니다. 작년 8월, 농기연 대표님으로부터 농기연의 새로운 사역으로 전도 부스를 함께 기획해 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연락을 확인했을 때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담스러움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앞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안한 마음에 답장을 미루다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답장을 쓰려 카톡 창에 들어갔을 때 저도 모르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해봅시다!' 라고 빠르게 쓰고는 전송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지만, 저는 이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 부스 사역의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통해 복음을 들고 캠퍼스 인원들에게 다가가는 장벽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하여 무엇보다 전도 부스의 연속성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격주로 두레미담 건물 앞 공터에서 병 음료와 함께 말씀 카드를 나눠주는 부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전도 부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65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를 찾아 연락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단체를 물색하던 중, 서울대 seed 공동체가 농기연 동아리방을 모임 장소로 몇 차례 빌린 적이 있던 터라, 첫 번째로 seed 공동체와의 연합 사역으로 사랑의 교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seed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seed 내에서도 기도 모임에서 더 나아가 교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도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나, 교내 정식 등록 동아리가 아니었기에 활동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연결하심으로, 농기연과 seed의 음료 전도부스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한 음료의 분량이 다 나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조바심이 있었지만, 시간을 맞춰 정해진 분량의 음료가 나가게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스를 사용 중이신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스를 지키며 그저 앞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예수님이 음료와 말씀 카드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쫓아가 붙잡으시고, 먼저 말 거시는 이미지를 자주 상상했습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스를 애써 피해 멀리 돌아가려고 하다가, 음료를 얻는 데에 어떠한 설문조사나 모든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놀라면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 없는 나눔이 이 시대에 얼마나 희귀하고 어색한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점 굳어지는 세상에, 하나님만이 하셨고,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더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음료만으로는 결코 다 채워지지 않을 영적 목마름이 그들에게 인식되어 영원한 해갈을 주시는 분께로 인도되는 시작점이 되길, 직접 뽑아간 말씀 구절이,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은(산림과 24)

수의기연 크리스마스 파티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학과 본과 3학년을 다니다가 군 휴학하여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19학번 조유빈입니다. 제가 수의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수의대에 기독인 연합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물론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과 전체 카톡방에 15학번 선배가 올린 모집글을 본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는 선교단체JOY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서기연에서 주최하는 개강예배, 종강예배는 다양한 선교단체 사람들이 모여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어요. 2학년 때부터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려고 노력했는데, 갈 때마다 수의대생은 저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끝나고 항상 혼자 밥을 먹고, 옆에 미대, 인문대 분들이 참 부러웠어요. 알고보니 수의대 기독인 연합은 사라진 지 꽤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CCC를 하는 18학번 수의대 선배를 종강예배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수기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도 수의대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 컸던 터라, 꼭 함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3학번 명진이가 수기연을 이끌게 되었구요. 저는 군대가기 전 1년 정도만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아침이나 점심에 가끔씩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처음이라 어색하고, 정해진 틀도 없었던 기억이 있네요. 군대를 가고 단톡방을 보니 새로운 분들,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인원 변동이 많았던 거죠.

저는 군대를 간 보통사람들과 같이 인원이 변동된 수기연 사람들을(사회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약간 두렵게도 느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신앙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 성격에는 쉽지 않았고, 군대에 가서 더 그런 성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끄고 살았죠.

그러다 우연히 명진 후배님이 카톡으로 크리스마스 파티에 올 수 있나고 물어봐주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찾는다는 것은 참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수기연 톡방에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딱 제 휴가 날짜랑 맞더라구요, 명진 후배님께서 해주신 홍보가 참 감사했습니다.

12/22 휴가 첫날 인제에 있는 부대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울대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수기연 분들이 모였고, 따뜻한 밥을 같이 한끼를 먹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3명의 분들은 본과 시험기간이 막 끝난 뒤라 시험과 본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후에 카페에 가서 요즘 삶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쿠키를 받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하여 어색함도 있었지만, 수의대에 기독인 연합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희망과 기쁨이었어요. 비록 다들 바쁘고, 마음이 어색해서 자주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수의대는 6년이니까^^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으리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올해 군복무를 바치고 복학하게 된다면, 다시 수기연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수의대에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학업이라는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마음을 나누기가 가끔은 매우 힘들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기연은 이제 막 시작한 아이 같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하나하나 쌓여 언젠가 개강,종강 예배에서 10~20명씩 기쁘게 애프터를 하게 되겠죠?

천천히 한 걸음씩 시작하고 있는 수의대 기독인 연합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유빈(수의학과 19)

크리스마스 사역 후기

이번 크리스마스 사역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와 상업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에 이번 사역에서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말이 아닌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역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선물포장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한 분들이 직접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한 포장 활동이지만, 선물을 받을 사람을 떠올리며 정성을 들이는 이 과정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역 기간 동안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선물포장 부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였고, 많은 분들이 선물을 포장하며 자연스럽게 감사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포장하니 더 마음이 담기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반응을 통해,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역은 복잡한 설명이나 거창한 메시지보다, 작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며 선물을 포장하는 손길과 그 과정에서 오가는 미소와 대화 그 자체로 사랑의 전달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복음의 정신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음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사역을 통해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물포장 부스에서의 짧은 시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서윤(성악 25)

북클럽 소식

서울대 기독학생 북클럽을 소개합니다!

서울대 기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의 생기를 만끽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움트는 새싹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성과 지성이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서울대 기독학생 북클럽”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서울대 기독학생 북클럽은 2017년 몇몇 기독인 대학원생의 책 읽기 모임에서 시작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학부생 모임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목사님이신 석종준 목사님(침신대 종교철학 박사)을 중심으로 현재 대학원생 모임은 장요한 간사님(장신대 선교학 박사과정, 경제학부 12학번), 학부생 모임은 남명현 간사님(감신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종교학과 18학번)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더하여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회장이신 박동열 교수님(불어교육과)께서 지도교수로 모임을 지원해 주십니다.

북클럽은 다음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과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모임입니다. 신앙과 학문이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 위에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둘째, 즐기는 모임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식사와 함께 유익한 대화가 꽃피는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함께 자라가는 모임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 되어 성장하는 모임을 지향합니다.

북클럽이 진행하는 활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모임입니다. 매주 1회, 점심 혹은 저녁 시간대에 정기모임이 진행됩니다. 모임은 식사를 통한 친교의 시간으로 시작하여, 담당자가 해당 주차의 책 내용을 나눈 후에 자유로운 나눔 및 토론이 이어집니다. 읽는 책의 범위는 가벼운 신앙서적부터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담은 저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고전 등 다양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고전에 해당하는 라인홀드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읽게 됩니다.

둘째는 북콘서트입니다.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북콘서트는 2021년 여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0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금은 타 대학과 일반 청년들까지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회 1박 2일로 진행되는 북콘서트에서는 지정된 발표자들이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담은 책을 북콘서트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 간에 혹은 발표자와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열린 제10회 북콘서트는 〈AI 시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특강까지 해주셨기에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기독학생 북클럽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성장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정명현(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010-7234-091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명현(정치외교 석사과정)

2025-2학기 종강예배 사진

간기모 식교제

공기연, 첨단융합학부 식교제

국제학생 식교제

기도하는 모습

기독대학원생 식교제

사범기연 식교제

찬양하는 모습(1)

찬양하는 모습(2)

들리오의 찬양

축복하는 모습(1)

축복하는 모습(2)